

전후복구기 문경시멘트공장의 설립과 주변 지역의 변화

Mungyeong Cement Factory and the Transformation of Its Surroundings in the Post-war Recovery Period

○이 희 열* 이 연 경**
Lee, Hui-Yeol Lee, Yeon-Kyung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transformation of the surrounding area following the establishment of the Mungyeong Cement Plant, one of the key industrial facilities built during Korea's post-war recovery. To support national reconstruction after the Korean War, the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UNKRA) planned the construction of the plant in Singi-ri, Mungyeong. Formerly agricultural land, Singi-ri was rapidly reshaped into an industrial village with the arrival of the plant. The growth of the cement industry spurred continuous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cluding the construction of company housing and the introduction of electricity and a water supply system. As the industry later stagnated, efforts were made to restructure the village—such as road improvements and the creation of new industrial complexes—in an attempt to revitalize the area. By tracing this temporal progression, this study examines how the establishment of key industrial plants during the post-war recovery period influenced the development of their surrounding environments.

키워드 : 시멘트 공장, 공장 마을, 문경, 전후 복구, 운크라,

Keywords : Cement Factory, Factory Town, Munkyeong, Post-war Restruction, UNKRA

1. 서론

문경시 신기동에 위치한 구 쌍용양회 공장은 1957년 운크라의 전후복구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된 시멘트 생산공장이다. 본 공장이 설립됨에 따라 한적한 농경지였던 문경군 신기리는 공장의 배후지로서 발전하게 되었다. 기간산업의 등장은 단순히 해당 지역에 공장을 건설하는 것만이 아닌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를 함께 구축하며 지역의 변화를 동반한다. 본 연구는 산업시설의 등장이 주변 배후지 형성 및 변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전후복구기 국가 주도로 빠르게 이루어진 기간산업이 농촌 지역의 변화에 미친 영향에 주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경북 문경시 신기로 250번지에 위치한 구 쌍용양회 공장과 주변 지역인 문경시 신기동¹⁾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의 시기적 범위는 공장 설립이 추진되기 시작한 1955년부터 2018년 공장 폐쇄 이후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인 현재까지로 한다. 70년 동안 시멘트 공장의 설립 운영과 공간 변화가 주변 지역인 신기동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미국 국립기록청(NARA) 소장 문서 및 국가기록원 소장 문서 등의 사료 분석, 시멘트 공장 관련 도면 분석, 항공사진 및 지도 분석을 통해 신기동 일대의 변화양상을 추적하였다.

2. 문경 시멘트 공장의 설립과정

한국전쟁 이후 유엔은 황폐화된 한국의 재건을 위해 유엔한국재건단(UNKRA(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이하 운크라)을 조직하고 지원을 시작하였다. 운크라는 원활한 재건 활동을 위해 주요 기간산업의 복원을 목표로 삼았는데, 구체적으로 자체적인 자원 생산능력 확보를 위해 비료, 판유리, 시멘트 산업의 복구를 우선하였다. 그중 시멘트 산업에 대하여서는 초기에는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삼척 시멘트 공장의 복구를 목표로 하였지만 더 많은 시멘트 생산량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시멘트 공장을 건설하고자 하였다²⁾.

1953년 6월 운크라는 미국의 광산업 전문 회사인 KTAM(Knappen-Tippetts-Abbett-Mccarthy)에 신규 시멘트 공장 건설부지 탐색과 지질조사를 의뢰하였다. 이후 KTAM

* 연세대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 연세대 건축공학과 부교수, 건축학박사

(Corresponding author : Department of Architecture and Architectural Engineering, Yonsei University, yk27@yonsei.ac.kr)

¹⁾ 현재의 지명은 문경시 신기동이나(1995년 이후) 본 연구에서는 공장 최초 설립 당시의 지명인 신기리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²⁾ UN & UNKRA. (1952). Addenda to the report of the Agent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UN Digital Library.

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문경과 단양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최종적으로 문경군 신기리가 선정되었다. 선정 이유로는 1) 부지확보의 용이함, 2) 원료(석회석)확보의 용이함, 3) 연료(석탄)확보의 용이함이 이점으로 작용하였다³⁴⁾.

부지 선정 이후 1954년 4월 7일 입찰을 통해 덴마크의 F.L.SMIDTH(이하 스미스사)가 건설 업체로 선정되었다. 이후 1954년 9월 덴마크 기술자들이 신기리를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1955년 11월 1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장 건설에 들어갔다. 시공 과정에는 삼환건설과 대림산업, 동흥공작소, 전일기업, 조흥토건 등 국내 건설 업체들이 참여하였다. 그중 삼환건설은 킬른과 굴뚝, 슬러리 사일로, 시멘트 사일로, 공작반 사무실 등 공장 내 주요 시설을 비롯해 사택단지 및 진입도로 건설 등 주변 지역 환경의 조성에도 참여하였다⁵⁾. 1957년 9월 27일 준공식 이후 대한양회가 인수하여 운영하였다.

3. 시기별 공장과 주변 지역의 변화

3.1 공장 건설과 공장 마을의 시작(1953-1957)

시멘트 공장 부지로서 신기리에 대한 최초 기록은 1953년 6월 KTAM에서 실시한 시멘트 공장 건설부지 탐색 보고서에서 나타난다. 당시 문경 신기리는 영강 남단에서 떨어진 저수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작은 촌락으로 대다수의 지역이 논밭으로 이뤄져 있었다. 이러한 당시 상황은 오히려 공장을 건설함에 있어 이점으로 작용하였다. 오노다 시멘트가 일제강점기 시절 매입한 부지가 있어 부지 확보가 쉬웠으며, 인근에 석회석 광산이 위치하여 원료 확보에 유리하고 영강 남단에 위치하여 수원 확보에 수월하였다. 또한 기존의 기차선로에 주평역이 들어설 예정으로⁶⁾ 물자 운송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⁷⁾.

공장 건설이 시작되면서 우선적으로 주변 도로가 건설되고 1955년 9월 문경선이 개통된 이후⁸⁾ 1956년 1월 10일 주평역이 설립되어 영업을 시작하였다⁹⁾. 또한 덴마크 기술자들의 빠른 이동과 물자 운송을 위해 간이 활주로가 만들어졌다. 본격적인 공장 건설이 진행되면서 인부들의 유입이 발생하자 인부들의 임시 주거지가 공장 부지 주변으로 형성되었는데 이 임시 주거지 중 공장 부지 북쪽으로 형성된 곳은 점차 규모가 확장되어 주평시장으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주평역을 통해 인부들의 출퇴근이 이뤄지면서 자연스럽게 주평역 중심으로 상점가가 형성되었다.

1956년 도로와 기차역 등 기본적인 교통 인프라가 형성

된 이후 1957년에는 사택 단지가 건설되었다. 사택 단지에는 공장장 사택을 비롯하여 덴마크 기술자 사택(A사택), 직원사택(B사택), 독신 직원의 기숙사인 독신료, 구락부, 진료소 등이 들어섰다. 이로써 시멘트 공장 마을의 전체적인 형태가 만들어졌다. 사택 건설은 운크라에서 주택 도면과 흙벽돌, 나무 판재 등의 건설 재료를 제공하여 이루어졌으며, 운크라의 지원사업 중 하나인 ‘학교건설 프로그램’을 통해 8개의 교실로 구성된 신기국민학교가 건설되었다¹⁰⁾.



그림 1. 1956년 건설 중인 기술자 사택(A사택 지구)

출처: UN Photos

3.2 대한양회와 공장 마을의 체계 확립(1957-1975)

1957년 시멘트 공장의 완공 이후 운크라와 정부는 경제 자립과 자급자족적 사회 확립을 위해 민간 기업에게 공장을 양도하고자 하였다. 이에 입찰을 진행하여 대한양회가 운영권을 인수하였다. 대한양회의 운영이 시작되면서 늘어나는 직원 수용을 위해 추가적인 사택 지구(C, D사택)를 건설하게 되면서 신기리의 인구 역시 증가하였다.

이후 1962년에는 사택을 비롯한 신기리 지역에 급수와 전기가 공급되었다. 공장 한 칸에 변전실을 추가로 건설하고 사택 지구 전체에 대한 전기 배선 설비를 설치하였다. 이후 공장 내 발전소에서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신기리에 공급하였다(그림 2). 그리고 영강에 설치한 양수장을 통해 물을 끌어 올려 공장 내 정수장을 통해 정수 작업을 거친 후 마을에 상수를 공급하였다. 또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영화관의 기능을 겸하는 극장인 대양회관과 테니스장, 씨름장 등을 신기리의 중심에 설치하였고 공장 건설 당시 미군의 건설본부로 쓰인 부지와 건물을 활용하여 신기 유치원을 운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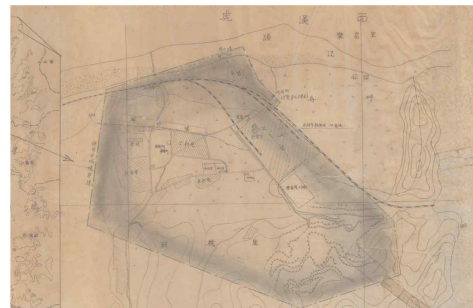


그림 2. 1962년 작성된 전기 공급구역도

출처: 문경시

3) UNKRA. (1954). KTAM-UNKRA Reports, FY 1953, Studies on Korean National Cement Program. NARA.

4) 임정원, & 이연경 (2024). 산업유산으로서의 문경 시멘트공장의 가치에 관한 고찰 -시멘트 생산 공정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5) 삼환기업주식회사, (1979). 三煥三十三年史. p.210-212

6) 교통부. (1956). 역 신설철도운수영업개시(교통부고시 제45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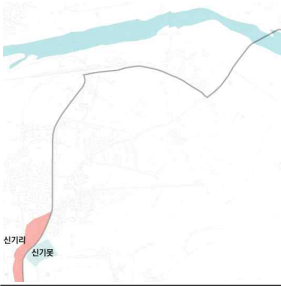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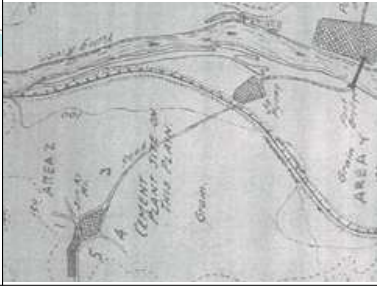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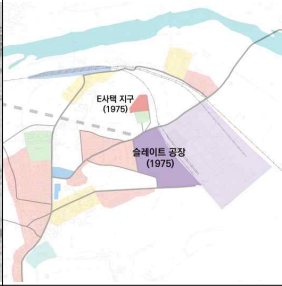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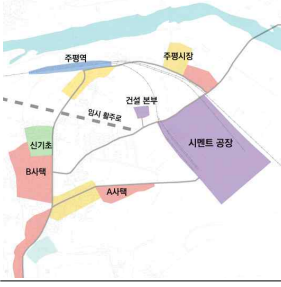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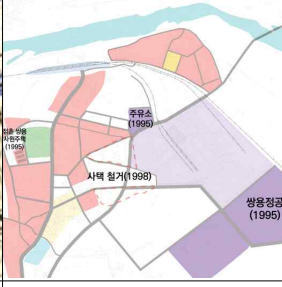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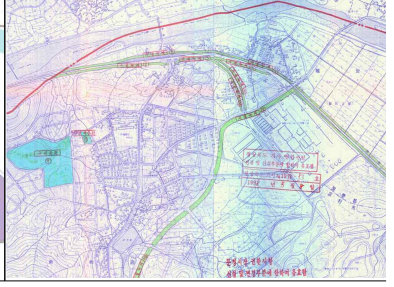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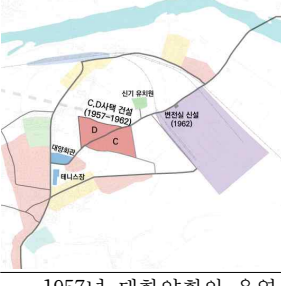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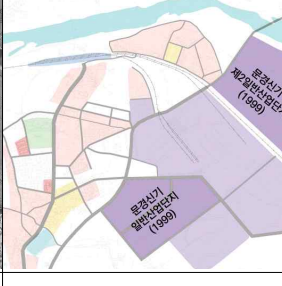
7) UNKRA.(1954). Ibid.

8) 한국철도시설공단. (2005). 한국철도건설백년사(상). p.170-173.

9) 교통부. (1956). 역 신설철도운수영업개시(교통부고시 제453호).

10) UNKRA. (1957). Report of the Agent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for the period 1 July 1956 to 30 June 1957. UN Digital Library.

표 1. 시기별 문경 신기리의 변화

공장 건설 이전 (1953년 이전)		쌍용양회 시기(1975-1995)	
			
-1953년 후보지 조사 보고서에서 나타난 신기리		-1975년 쌍용양회로의 운영주체 변경 -슬레이트 공장과 E사택 지구 추가 건설	
공장 건설기 (1953-1957)		쌍용정공의 등장과 신기리 내 도로 재정비 시행(1995-1998)	
			
-1956년 건설 초기 주평역 설립 및 공장 북쪽 주평시장 형성 -1957년 기술자 및 직원 사택 단지(A,B사택)와 신기 국민학교가 건설됨.		-1995년 쌍용정공단지와 점촌 쌍용 직원사택 조성 -1998년 『문경점촌도시계획정비』 시행, 도로 재정비	
대한양회 시기(1957-1975)		문경신기일반산업단지(1998-2025)	
			
-1957년 대한양회의 운영시작, 추가 사택 단지 건설(C,D사택) -1962년 공장 내 시설에서 생산한 전기 및 수도 신기리 공급 -대양회관과 테니스장 등 직원 복지시설 확충		-1999년 문경신기일반공업단지 조성 -2016년 문경신기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이처럼 대한양회는 직원들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전기 및 수도 등 기반 시설을 제공하였으며, 다양한 복지 및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문화시설 등을 설치하였다. 이 시기 신기리는 점차 도시의 형태를 갖추어 갔으며 지역 내 주요 공장 마을로 발전해 갔다.

3.3 쌍용양회와 산업단지의 형성(1975-1995)

1975년 1월 4일 대한양회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쌍용양회로 흡수·합병되었다¹¹⁾. 이로 인해 문경 시멘트 공장 또한 쌍용양회에서 운영하게 되었다. 인수 이후 쌍용양회는 새마을 운동의 영향으로 공장 남서쪽에 슬레이트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였고 1975년에는 추가적인 공장 설치로 인해 늘어난 직원들을 수용하기 위해 유치원 북측 일

대에 추가적인 사택 지구(E사택)를 건설하였다. 1975년 이후 신기리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하지만 1983년 시멘트 산업의 침체와 인근 채석장의 자원 고갈로 인해 지역 환경 역시 변화하였다. 30년간 운영되었던 채석장이 폐쇄되고 이후 채석장의 환경 복구 계획이 수립되면서 채광으로 훼손된 채석장을 다시 녹지로 복구하는 작업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석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던 발전소의 운영이 중단되고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새로운 운영 주체의 등장과 함께 추가적인 공장이 건설되면서 지역 내 변화가 발생하였지만, 시멘트 산업의 침체와 인근 채석장의 자원 고갈로 인해 호황을 누리던 신기리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11) 동아일보 1975.01.04. 기사 <쌍용洋灰, 대한洋灰 흡수합병>

3.4 산업구조와 도시 체계의 변화(1995-현재)

1995년 광산의 폐광과 발전소 운영 중단으로 인해 더 이상 연소물이 발생하지 않자, 침전지를 메웠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공장인 쌍용정공이 들어섰다. 쌍용정공의 운영을 위해 1995년 B사택 지구의 일부를 철거하여 쌍용 점촌 사원주택을 신축하였다(그림 3). 그리고 공장 북서쪽에 있는 신기 유치원과 E사택 지구를 철거되고 그 자리에 주유소가 들어섰다. 이처럼 신기리는 새로운 산업단지의 등장과 차량 운송¹²⁾의 등장에 맞춰 도시의 구성 체계와 요소가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림 3. 1995년 3월 건설 중인 점촌 쌍용 사원주택
출처: 문경시

이어서 문경시에서는 도로 체계를 재정비하기 시작하였다. 1998년 5월『문경점촌도시계획정비』가 실시되어 신기리 전체에 대한 도로 체계의 정비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A, C사택 지구가 완전히 철거되고 B, D사택 지구 일부만이 남겨졌다. 또한 공장 건설 당시 설치되었던 간이 활주로 자리에 새로운 도로와 주택이 건설되었다. 그리고 점촌으로 향하는 신기리 내 중심 가도인 신기1길을 확장하게 되면서 극장과 테니스장 등 지역 내 문화 및 여가시설도 사라지게 되었다.

도로 재정비사업 이후 문경시는 쌍용양회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문경신기일반공업단지를 조성하였다. 새로이 지정된 구역에는 문경운전면허시험장을 시작으로 많은 공장들이 들어섰다. 계속된 공장들의 입주와 노후 주거지의 철거는 신기리의 경관을 크게 변화시켰다. 현재는 B사택 지구에 위치한 독신료와 1995년에 지어진 쌍용 점촌 사원주택만을 제외하고 시멘트 공장 마을을 구성하고 있던 요소들은 모두 철거되었다.

4.결론

전후복구기에 건설된 기간산업공장은 주변 지역의 형성과 발전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 공장 건설 초기 농경지에 불과하였던 신기리에는 도로와 철도역 등 교통 인프라가 들어섰고 공장 주변으로는 임시 주거지와 시장 등이 형성되었다. 이후 기술자와 직원들을 위한 사택 지구와 학교 등 부대시설이 들어서면서 전체적인 마을의 경관을 형성하였다. 공장의 준공 이후 신기리 내에는 전기와 수도가

공급되었으며, 추가적인 사택 지구와 직원 복지를 위한 극장, 테니스장 등이 건설되었다. 이처럼 신기리는 점차 도시의 형태를 갖춰 나갔다. 1975년 쌍용양회로 운영 주체가 변경된 후 추가적인 공장과 사택 단지가 건설되었지만 1983년 산업의 침체와 석회석 광산의 자원 고갈로 인해 신기리의 도시환경 역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1995년 기존의 침전지 자리에 쌍용정공이 신설되어 기존의 시멘트 공장과 함께 쌍용공업단지를 조성하였으며, 1998년에는 도로가 재정비되었다. 이후 쌍용공업단지를 중심으로 문경신기일반공업단지가 구성되며 지역의 새로운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

본 연구는 전후복구기 등장한 기간산업단지가 단순히 생산시설의 확충을 넘어 지역사회 전반의 생활권 형성과 공간구조의 변화를 유도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건설 부지 탐색 당시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었던 단양군 매포리와 비교 분석하여 기간산업의 형성이 주변 배후지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1. UN & UNKRA. (1952). Addenda to the report of the Agent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UN Digital Library.
2. UNKRA. (1954). KTAM-UNKRA Reports, FY 1953, Studies on Korean National Cement Program. NARA.
3. UNKRA. (1957). Report of the Agent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for the period 1 July 1956 to 30 June 1957. UN Digital Library.
4. 김보름. (2021). 산업유산을 활용한 산업역사박물관 조성방안 연구: 문경 시멘트공장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산업연구, 21(3), 15-23.
5. 문경시. (2020). 문경 시멘트공장 역사기록물 구축 연구. 문경시.
6. 삼환기업주식회사. (1979). 三煥三十三年史. 삼환기업주식회사.
7. 임다운. (2020). 유엔한국재건단(UNKRA)의 조직과 활동 한국사론, 66(0), 201-260.
8. 임정원, & 이연경 (2024). 산업유산으로서의 문경 시멘트공장의 가치에 관한 고찰 -시멘트 생산 공정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9. 한국철도시설공단. (2005). 한국철도건설백년사(상). 한국철도시설공단
10. 교통부. (1956). 역신설철도운수영업개시(교통부고시 제 453호).
11. 동아일보 1975.01.04. 기사 <쌍룡洋灰, 대한洋灰 흡수 합병>

¹²⁾ 1995년 이후 시멘트 공장의 원료 및 제품운송은 차량이 화차를 대체하게 되었다.